



찬 송 가

384장 나의 갈길 다 가도록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판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옹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 전엔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2024 설 추모예배 순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운 설 명절 되세요

예배순서

예 식 사 ----- 다 같 이

지금부터 명절 추모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 384장 ----- 다 같 이

기 도 ----- 가 족 중 에

성 경 봉 독 -----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18절 ----- 다 같 이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 씬 ----- 부활의 소망 ----- 인 도 자

기 도 ----- 인 도 자

축복과 권면 ----- 다 같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축복과 덕담을 나누고
자녀들은 부모나 어른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 송 ----- 314장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부활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18절)

오늘 우리는 앞서가신 故 000 님을 추모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이렇게 추모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올 때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겸허하게, 진실되게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끝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을 보면, ‘죽음’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잔다라는 말에는 때가 되면 깬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듯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도 깨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때를 부활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깨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고인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육체는 잠시 흠으로 돌아갔지만,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는 우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하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가족들간에 더 화목하게 지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